

(1) 지원동기

무엇보다 자기소개서의 핵심은 입사지원 동기이다. 자신이 그 기업에 얼마나 관심을 가져왔으며, 입사를 위해 무엇을 준비해 왔는지 얘기한다. 또 자신이 이미 입사했다는 가정하에 나만의 청사진을 제시토록 한다. “뽐아주기만 하면 열심히 일하겠다”는 진부한 표현은 삼가는 것이 좋다. 입사 지원동기를 구체적으로 밝혀라.

지원하고자 하는 회사의 특성도 파악해 놓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평소에 관심을 갖고 신문이나 인터넷을 통해 지원하고자 하는 회사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 둘 필요가 있다. 지원하려는 기업의 업종이나 특성에 맞게 지원 동기를 서술해야 한다. 회사의 업종, 경영이념이나 철학, 인재상, 창업정신, 비전 등과 연결시켜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이 좋다.

자신이 추구하는 철학, 비전 등을 회사의 특성과 구체적으로 비교해 입사지원동기를 밝히는 것이 좋다. 동기가 확실치 않으면 성취의욕을 적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자신과 지원하고자 하는 회사에 대한 충분한 분석을 바탕으로 자신의 가치관과 기업에서 바라는 인재상이 이러 이리한 점에서 유사하기 때문에 지원했다고 설득력 있게 설명해야 한다. 또한 자신의 전공과 희망 등과 연결시켜 지원 동기를 명확히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회사의 인재상과 자신을 연결하라. ‘입사하고 싶은 이유’를 쓸 때는 회사가 추구하는 기업상과 인재상을 연결해 설명하면 좋은 인상을 심어줄 수 있다. 주위 사람이나 선배의 소개, 학교 교수님의 추천 등이 있을 수 있겠지만, 단순한 소개에 의해서 지원했다고 하기 보다는 더 명백한 지원동기를 필요로 한다. 막연한 지원동기는 표현이 다소 미흡해다 해도 지원자의 간절한 마음을 전달해 줄 수는 있으나 ‘성실한 모습’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지원자의 마음이 왜 그 회사에 들어가는지 분명한 이유를 설명해 주는 것은 아니다.

추천할 만한 방법은 자신의 적성과 비전을 제시하는 방법이다. 취업하고자 하는 기업에 대해서 조사하여 그 기업의 업종이나 특성에 맞게 지원동기를 기술한다면 좋을 것이다. 지원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정보라도 수집하는 것이 좋다. 지원 업체 정보는 인터넷을 통해 알아보거나, 전화로 될 하는 회사인지 간략하게 물어볼 수도 있다. 일단 업체가 무슨 일을 하고 어떻게 수익을 얻는 회사인지를 파악하고 그 업체에 입사했을 때를 가정해서 자신이 맡게 될 일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성의가 필요하다.

ex> 막연한 지원 동기

귀사에 꼭 입사하고 싶습니다. 저에게 소중한 기회를 주신다면, 귀사의 기대에 한치의 어긋남 없이 최선을 다하며 성실한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ex> 구체적인 지원 동기

대학에 다니는 동안 많은 경험을 쌓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과외, 패밀리 레스토랑, 학원강사, 고객자료입력, 마케팅 보조 등 많은 아르바이트를 접해 보았습니다. 지난해 2월부터 현재까지 (주)○○리서치에서 광고대행업무를 담당하면서 실무 경력을 착실히 쌓아오고 있던 중 귀사의 공채시험에 응시하게 되었습니다.

자기소개서는 사실적이고 구체적인 정확한 정보가 뒷받침되었을 때 가치가 돋보인다. 희망업무는 이미 지원동기에서 언급한 것처럼 전공이나 적성을 살리기 위해서나, 또는 평소 그 업종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있었다면 좋을 것이다.

지원동기에서는 타켓을 명확하게 언급해주어야 한다. 대부분 기존에 보관한 일기나 일지 등을 보면서 자신의 경력사항에서 최대한 빠뜨리지 말고 처음부터 들어가도록 한다. 왜냐하면 구체적 언급이 없으면 장황한 글이 되기 쉽기 때문이다.

성격과 전공, 희망업무가 적절하게 일치하는 것이 좋다. 자신의 성격과 희망업무 등이 일치할 때 효과는 더 커진다. 고등학교 때부터 수학경시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는

데, 대학교는 인문학부로 지원했다고 한다면 일관된 인상을 주기 어렵다.

전공이나 희망업무가 중도에 바뀌었다면 그 계기를 설득력 있게 풀어 자신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 좋다. 특히 분야를 변경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해줘야 한다. 공대를 나온 어떤 기술사는 30대 중반의 나이에 인생의 전환을 위해 변리사 공부를 시작했다. 그가 변리사 공부를 시작했을 때는 기술 경력이 무려 12년이었다고 한다. 기술경력 12년이면 능력을 제대로 발휘할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진로를 변경해야 할 이유는 무엇이였을까. 그는 기술사를 인정해 주지 않는 사회풍토 때문이라고 역설한다. 왜 30대 중반에 인생의 방향을 바꾸어야 했는지, 그 원인을 설명하면서 아무리 노력해도 기술사로서 성공할 수 없는 사회구조 때문이었다고 주장하는 그의 이야기는 설득력이 있었다.

만약 채용된다면 어떻게 잘 적응할 수 있는지, 자신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어떠한 준비와 노력을 해야 할 지를 먼저 설계하고 있어야 한다. 이를 자기소개서에 반영했을 때 그 사람을 채용할 확률이 높아질 것이다.

(2) 장래 포부

장래포부는 향후 자신의 인생설계 부분으로 매우 중요한 내용이다. 자신이 장차 추구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자기 연구가 우선 개진되어야 한다. 자신의 포부 수준이 단순히 황금빛 미래만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자기가 선택한 업종에 대한 목표성취나 개발을 위해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언급하라. 어떤 경력사원도 처음 입사하면 그 회사에서는 신입사원이 된다는 것을 상기해야 한다.

ex> 신입사원의 장래포부

인간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자신의 적성에 맞는 일에 열정과 에너지를 쏟고 있을 때라고 생각합니다. 10년 후 팀을 리드하고, 회사를 위해 정말 없어서는 안될 위치에 서 있는 제 모습을 확신하면서 한결같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신입사원의 마음가짐으로 배우고 노력하면 잠재능력을 깨우는데 몰두할 것이며, 정거장 없이 변화를 겪는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지 않고 발전에 가속도를 붙여 빛을 내는 진주 같은 인재가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차보일 수 있고, 좋은 인상을 줄 수도 있지만 인사 담당자나 회사측의 입장에서 자기 회사와 관련된 장래포부를 접했을 때, 더 호감이 가는 것이 사실이다. 가능하다면 지원하고자 하는 회사와 관련한 장래희망과 포부를 작성하는 것이 좋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자신의 포부와 비전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라. 기업이 자기소개서를 통해 파악하고 싶어하는 것 중의 제일 중요한 하나가 지원자의 발전가능성, 잠재 능력, 장래성 등이다. 인사담당자들은 장래포부를 잘 작성한 사람은 업무에 임할 때 매사에 적극적이며 열의를 갖고 있다고 판단한다. 자기 나름대로의 목표가 있으면 이 목표를 향해 나아갈 열정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입사를 희망하는 기업의 업종, 특성을 고려해 자신의 포부와 비전을 명확히 제시하고, 입사 후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떠한 자세로 임할 것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좋다.

ex> 전문가의 장래포부

저는 전문성을 갖춘 엔지니어가 되고 싶습니다. 특히, LCD 분야에서 기술을 익혀 기회가 된다면 세계 최대의 LCD생산업체인 귀사에서 꿈을 키워 전문 기술자가 되고 싶습니다. 제가 가진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새로운 기회가 눈앞에 와 있는 지금, 저는 이런 다짐을 해 봅니다. 책임감 있고 성실한 직원으로서, 저를 선택하신 결정에 대해 절대 후회 없게 최선을 다해 보답할 것입니다.

먼저 장래 희망과 포부를 밝히는 것이 좋다. 또한 막연한 일반론을 펼치는 것보다 희망 회사와 연관이 있는 내용들을 함께 기술하는 것이 좋다. 희망회사의 업종이나 특성 등에 자신의 전공 또는 희망을 연관시켜 자기소개서의 지원동기를 구체적으로 밝혀준다. 이를 위해서는 평소 신문이나 사보 또는 기타 자료 등으로 해당 기업에 대해 미리 연구해 두는 것이 좋다. 앞으로의 포부를 말할 때는 “열심”, “최선을 다해”라는 막연한 표현보다는 일단 그 회사에 입사했다는 가정 아래 목표 성취와 자기계발을 위해 어떠한 계획이나 각오를 갖고 일에 임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이 좋다.

뚜렷한 목표의식이 없는 지원자는 단순히 취업을 위해 지원했다는 인상을 주기 쉽다. 평소에 짧게는 3년 후 자신의 모습, 길게는 10년 후 자신의 모습 등을 나름대로 설계해서 현실성 있게 목표를 잡고, 그 목표를 수행하기 위한 실행 전략 등을 세워 두어야 한다. 먼저 장래에 대한 전략을 세워두었다면, 자기소개서 작성 시 자신의 비전을 보다 명확히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3) 학력사항

학력사항은 신입의 경우, 무척 신경 써야 한다. 학교생활 또는 과외활동, 봉사활동 등을 소개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신의 재미있는 일화나 경험을 토대로 겪은 경험을 적는다면, 읽는 사람들에게 호감을 유발시킬 수 있다. 예를 들면 학력이나 경력난 등은 이미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 이외에, 여러 아르바이트 등을 통한 역경을 딛고 일어난 의지 같은 것을 진솔하게 기술하면 좋다.

1) 초등학교 . 중학교 때의 특별한 기억

초등학교 . 중학교 시절은 될 수 있으면 짧게 서술해야 한다. 특별활동, 수상실적, 주요 관심 영역 등을 주로 다루되, 장황하게 늘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자신이 진로를 선택한 계기나, 취미를 갖게 된 배경 등 특별한 기억 위주로 간단 명료하게 적어야 한다. 일일이 자신의 장점을 다 서술할 필요는 없으나, 전국적인 규모의 큰 시상이나 같은 또래와 비교해서 특별하게 뛰어난 재능이나 경험은 서술해도 좋다.

2) 고등학교

고등학교 시절은 굵직한 것들을 위주로 제시해야 한다. 특별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수상실적, 개근 . 정근상 수상, 컴퓨터 및 외국어 능력, 각종 자격증 등 자신과 관련있는 것들을 우선 생각해 본다. 특별 활동반이나 동아리 활동 및 봉사 활동을 하면서 느낀, 좋아하는 과목과 그 이유, 교내외의 각종 수상실적들을 나열하면서 자기의 장점을 부각 시킨다.

3) 대학 및 대학원이나 기타 교육기관

대학 생활은 자신의 학과, 성적, 동아리, 장학금, 교외활동 등 자신이 내세울만한 것을 중심으로 기술해야 한다. 우선 장학금이나 교내 수상 경력, 세미나 참석 등 자신이 대학 시절을 대표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찾아보아야 한다.

외국어 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토익, 토플, 텬스, 한자능력시험, 일본어 검정 능력시험 등의 최근 성적을 제시한다. 자격증은 그것의 취득 사실만 적지 말고, 어떤 종류의 자격증인지, 지원동기, 학습방법, 애로사항 등 그 과정에서의 느낌이나 경험을 적절히 서술하는 것이 좋다.

컴퓨터 자격증도 중요하지만, 어떤 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했는지 과정을 배우면서 느꼈던 점을 함께 적는다. 또한 컴퓨터 실력을 보여주기 위하여 개인 홈페이지를 만드는 편이 좋다. 만일 홈페이지가 있다면 주소(URL)를 써서 찾아 볼 수 있도록 배려하고, 각종 사이버 공간이나 커뮤니티의 활동도 소상하게 적는다. 학생회 임원이나 동아리 회장 등 단체장으로

활동했다면 활동 내용과 성과를 비교적 자세히 적고, 그 과정에서 느끼고 배운 점을 서술해야 한다. 또한 어학연수나 유학 경험이 있다면, 유학 생활을 보다 상세하게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 자신이 유학생생활에서 배우고 터득한 경험이나 기술을 널리 알려 좋은 평가를 유도할 수 있다. 이때 막연한 자신의 자량을 나열하거나 자기도취에 빠져 자화자찬에 골몰하기 보다는 솔직하고 진솔한 느낌이 들도록 서술하고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느낀 점과 배운 점을 중심으로 기술한다.

(4) 경력사항

경력사항은 학창 시절 아르바이트를 했던 경험, 사회에 나와서 다녔던 직장들에 대한 경험을 작성하되, 구체적으로 어떠한 부서에서 어떤 직무를 수행했는지를 상세하게 기술해야 한다. 물론 구체적인 성과나 주요 실적 위주로 작성해야 인사담당자에게 어필할 수 있다. 요즘 추세는 최근 것을 중심으로 관련 분야의 경력을 부각시키는 것이다.

다양한 경력을 갖고 있더라도 정작 핵심이 되는 것은 모집 직종과 관련된 경력에 한정된 경우가 많다. 따라서 단순 나열식보다 업무 성과 위주로 자세히 기술해야 한다. 특히 전 직장 경력이 있다면 직장 이름과 함께, 간단한 회사소개와 근무 부서, 직책, 담당업무, 주요실적 성과 등을 비교적 상세하게 적어야 한다. 즉 나는 어떤 분야의 업무를 할 수 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나타내야 한다.

ex> 저는 주로 여신 관리, 감정, 감사, 대부 관리를 하다가 2000년 8월 12일 대리로 승진했습니다. 대리 승진 이후는 대부, 감정, 출납, 검사 등의 업무를 했고, 회사에서 인정을 받아서 2000년 5월 2일 K은행에서 치하장을 받았고, 2000년 2월 8일 표창장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2000년 1월 5일 차장으로 승진했습니다. 그 때 담당했던 업무는 여신, 출납과 시공과금, 수신업무 등이 있습니다. 2개월 전 17년 동안 제가 열심히 노력했던 K은행을 퇴사했습니다.

구체적인 경력사항은 신뢰감을 줄 수 있다. 물론 경력에 관한 부분은 과장하지 말고, 사실 그대로 작성하도록 한다. 경력만을 적는데 그치지 말고, 자신의 업무수행 능력에 대해서도 기술하라. 특히 경력이 적은 사람일수록 해당 분야에 대한 자신의 수행 업무 능력을 강조하라.

경력이 많은 사람일 경우에는 그동안 자신의 경력을 바탕으로 이전 직장에서도 계속해서 수행했던 업무에 대해 강조할 필요가 있다. 특히 지원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경험했던 업무들이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를 중점적으로 부각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자신이 과거에 수행했던 프로젝트를 명시하고 해당 프로젝트에서 자신이 담당했던 업무에 대해서도 상세히 적어야 한다. 해당 프로젝트에 관한 포트폴리오가 있다면 참고자료도 함께 첨부하거나 자신의 홈페이지 주소를 적어 놓는 것도 자신의 업무수행 능력을 적극 홍보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다.

(5) 특기사항

특기사항은 특별한 기술이나 장기, 전문지식 등을 말하느 것이다. 경력이 없는 신입의 경우에는 지원한 분야와 관련된 수상경력 및 자격증에 대해 기술한다면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지원한 업무와 관련된 분야의 자격증 등은 적극적으로 강조해야 한다. 특기사항이라고 해서 정말로 특별하게 탁월한 재능만을 적을 필요는 없다. 학원 이수 내용, 세미나 및 연수받은 내용, 전 직장에 근무했을 때 특별히 익혔던 기술 등을 적는 편이 좋다. 이밖에도 운전면허, 기타 자격증, 어학 능력, 컴퓨터 활용 능력 등을 상세하게 작성한다.

전공의 특성 외에도 부전공, 외국어 구사 능력, 번역 등의 실력을 유감없이 밝힐 필요가

있다. 특히 요즘 외국어 능력을 중시하고 있으므로 중국, 러시아, 동구권 등의 새로운 시장을 대비하여 중국어, 러시아어, 아랍어 등을 익혀두면 금상첨화 격이다. 그밖에 컴퓨터 사용능력, 운전, 운동 여부와 각종 자격증, 면허증 등의 소지를 사실대로 적어야 유리하다.

진실로 적을 것이 없는 사람은 컴퓨터 능력이나 인터넷 능력 등을 위주로 작성하면, 여백을 채우는 데는 좋을 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 사람이 정말로 컴퓨터를 잘 다루는지, 인터넷을 잘 활용하는지 등에 대해서 검증받을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각종 수상경력, 대회 참가경력, 봉사활동, 학교행사 등에 ‘들러리’로 참여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자신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육하원칙에 입각하여 서술하고, 배우고 느낀점 등을 곁들이는 것이 좋다.

우리는 어떠한 과정이나 경험을 거치면서 전문지식이나 특기를 연마하고 쌓았는지, 어떤 분야에 내세울 수 있는 지식이나 경험을 갖고 있는지를 소개해야 한다. 그래야만 자신의 능력을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6) 성장과정

성장 과정은 어렸을 때 부모님의 교육관, 가정환경, 가훈 등 성장 과정에서 특별히 기억에 남는 일이나, 경험 등을 기술한다. 구태의연한 자기소개서의 도입부는 대부분 성장 과정에서 시작한다. 자기소개서의 성장 과정에는 언제, 어디서, 누구의 자식으로 태어났는지를 시작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특히, 성장 과정 부분은 장황하게 늘어놓아서 많은 분량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객관적 사실보다는 자기 인생을 지배하게 된 가정환경, 부모님의 교육 철학, 가훈, 인생관, 가치관 등이 나타나는 것이 좋으며, 간략하게 요약하면서도 핵심을 잘 제시해야 한다.

자기소개서는 제한된 지면이므로, 미리 자기가 써야 할 것을 간추려 본 후에 작성해야 한다. 이때 평범성 보다는 가급적 남들이 관심을 갖지 않던 새로운 것에 대한 언급이 필요하다. 여기에 어린 시절의 기억들을 추가하게 되는데, 그냥 기억들 중에서, 그 당시의 나의 모습, 성격, 가정환경, 학교생활 등을 짐작케 할 수 있는 내용을 작성하는 것이 좋다.

어린 시절에 대한 서술은 되도록 일화(episode) 형식으로 기술한다. 많은 사람에게 강한 인상을 주는 방법으로 적합하다. 가령, 자기 인생 전체에 큰 영향을 준 사건을 제시하거나 아주 감명 깊게 읽은 책, 주변이나 위인들 중 자신의 인생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친 인물에 대해 현재와 미래를 관련지어 이야기하면 좋다. 요즘은 성장 가정 이외에 자신의 가치관 또는 인생관을 요구하는 기업도 늘고 있다. 사회에 막 진출하려는 젊은이를 대상으로 지금까지 지나간 학업의 과정을 거치면서 어떤 생각을 해왔고 무엇에 가치를 두고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지를 묻는 경우가 많다. 성장 과정이나 가치관은 그 사람의 특징을 가장 잘 드러낸다.

(7) 성격의 장단점

우선 자신의 장점을 부각시켜라. 그렇다고 과장되게 작성해서는 안된다. 성격의 장단점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솔직하게 작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장점만 부각시키지 말고, 단점도 언급해야 한다. 물론 인사담당자의 대부분은 단점이 많은 사람보다는 장점을 많이 지닌 사람을 선호할 것이다. 따라서 단점은 솔직하되 간단하게 적는 것이 좋다. 자신의 단점을 장황히 묘사하는 대신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해왔는지 그 결과 어떻게 변화했는지에 초점을 맞춰 설명해야 한다. 이러한 방법은 ‘스스로 단점을 파악, 개선해 나갈 줄 아는 인간형’임을 부각시킬 수 있어 오히려 자신의 단점을 강점으로 승화시킬 수 있다.

ex> 자신의 장단점을 서술한 예

친구들 사이에서는 막내답지 않게 어른스럽다는 이야기도 들을 만큼 조숙했으며, 카운슬러로 통할만큼 친구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조언 해주기를 좋아해서 주위에 사람들이 잘 따

르는 편이었습니다. 반면, 제 고집은 아무도 꺾을 수 없다고 말할 정도로 고집쟁이로 통하지만 이런 성격은 한번 목표가 정해지면 끝까지 해내는 끈질긴 승부 근성으로 나타나 직장 생활을 하면서 똑 부러진다는 소리를 듣기도 합니다. 때로는 온화하고 때로는 강렬한 흡인력으로 사람들 속에서 빛을 발하는 제 성격이 지원하고자 하는 업무에도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의 지원자는 인사담당자가 ‘막내’라는 선입견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자신이 어른스럽다는 말과 카운슬러 역할을 해와 주위에 사람들이 잘 따르는 편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자신의 단점인 ‘아무도 꺾을 수 없는 고집’을 끈질긴 승부근성‘으로 묘사하고 있다. 하지만, 무리하게 자신의 단점을 강점으로 승화시키려고 한다면 오히려 낭패를 볼 수 있다는 사실에 유념해야 한다.

자기소개서 내용을 함부로 거짓이라고 의심하지는 않지만, 문제는 천편일률적인 표현에 있다. 몇 문장만 다를 뿐 대부분 지원자의 성격이 같다면, 인사담당자는 특별하게 인식하지 못한다. 자기소개서에 자신의 성격을 언급할 때는 구체적 예를 통해 성격을 짐작하게 만들어야 하고, 사실적으로 느껴지도록 가능한 예를 드는 것이 좋다. 특히 자신의 장단점에 대한 질문은 면접 시에도 자주 나오는 문제이므로 평소 자신의 장점과 단점을 철저히 분석해두고 자신의 단점을 강점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한다.

자신이 적극적인 성격이었다면, 이러한 성격을 구체적으로 기술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예를 들면, 학생회 임원이나 동아리 회장 등과 같이 리더십을 발휘했다는 자료를 곁들여 서술해야 한다. “조직 문화에 유연하게 적응할 수 있는 인재”라는 평가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말이다.

ex> 자신의 장단점을 효과적으로 서술한 예

먼저 앞에 나서서 추진하는 저돌적인 적극성보다는 침착한 준비를 통해 더 효과적인 결과를 내는 편입니다. 저는 어떤 일을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 오면 아무리 일이 벅차다고 해도 쉽게 그만둔다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학생회, 축구 동아리 등 단체생활을 해오면서 책임감에 대해 배웠습니다. 이런 근성 때문에 인내심이 강하다는 평가를 많이 받습니다. 이제껏 저에게 주어진 시간만큼은 가능한 한 최대한 활용하고자 노력을 다했으며 그런 저의 생활태도와 신념은 오랜 학교생활과 대인관계에서 유익한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학생회, 축구 동아리 등 단체생활을 해오면서 책임감을 얻게 되었다는 내용이다. 자신의 리더십 또는 업무 수행 상 도움이 될 수 있는 능력 등은 자신의 체험과 함께 언급하는 것이 좋다. 만약 마케팅에 지원한 사람의 경우, 우선 자신의 성격이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을 좋아하고 화술과 수완도 좋고 게다가 적극적이라면 금상첨화일 것이다.

자신의 성격을 묘사할 때 ‘인간적’이라는 인상을 주도록 노력해야 한다. 자기소개서의 가장 큰 목적은 인사담당자들이 자신을 한번이라도 만나보고 싶게 만드는 데 있다. 비교적 규모가 큰 조직일수록 오히려 인간적인 지원자를 원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